

2019년도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8월 8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신 호 순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현 기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3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

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전 논의를 거쳐 수출상황 평가, 고용부진 원인 및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된 이슈를 <참고>로 수록하기로 하였음. 이 가운데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부문 대출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추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7월 31일 위원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제Ⅰ장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중 금융상황지수 부분과 관련하여 동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움직임이나 지수의 장기균형 수준인 0의 의미를 기술하는 등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들은 제Ⅲ장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 중 금융안정 상황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부분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리스크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참고> 「최근 부동산관련 대출 동향 및 평가」와 관련하여 가계 및 기업부문 대출의 포괄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속도를 명목GDP와 비교하여 평가할 때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명목GDP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금조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상황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금

융중개지원대출을 좀 더 확대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지난 2017년 동 제도의 개편 당시 당행이 향후 전반적인 금융·경제 상황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상기하면서,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그간의 제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 동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앞서 발언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2017년 제도 개편 당시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상당히 활발했기 때문에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하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신규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당시와 반대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운용에 이러한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배분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설비의 가동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금지원을 통해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설비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생략)

나. 기타 사항

먼저 위원들은 2020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자를 다음 표와 같이 결정하였음.

2020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예정일

1월		2월		3월	
1.17(금)	1.30(목)	2.13(목)	2.27(목)	3.12(목)	3.26(목)
4월		5월		6월	
4.9(목)	4.23(목)	5.14(목)	5.28(목)	6.11(목)	6.24(수)
7월		8월		9월	
7.16(목)	7.30(목)	8.13(목)	8.27(목)	9.10(목)	9.24(목)
10월		11월		12월	
10.14(수)	10.29(목)	11.12(목)	11.26(목)	12.10(목)	12.24(목)

주 : 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는 금융안정회의

다음으로 위원들은 2020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종전과 같이 회의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첫 화요일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20년 6월과 9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개최되는 주를 피해 7월 10일과 10월 8일로 각각 앞당겨 공개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금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IMF/WBG 연차총회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일을 10월 17일에서 10월 16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